

# 『眉巖日記』 분석을 통한 16세기 사대부가(士大夫家) 음식문화 연구 - 丁卯年(1567年) 10月~戊辰年(1568年) 9月 -

김미혜\*

호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및 기초과학 연구소

## A Study on the 16th Century Food Culture of Chosun Dynasty Nobility in “*Miam's Diary*”

Mi-Hye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Hoseo University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Korean traditional food based on the recorded food preferences during th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Our primary source in this regard was the invaluable, historical document called the “*Miam's diary*.” This important document reveals details of such food preferences from October 1567 to September 1568. By analyzing the income-expenditure trends of virtually every household, this diary was used to describe a vivid traditional food preference of the people during that period. A detailed analysis of the diary reveals the summary of families' characteristics in the 16th century. First, it records the fact that expenditure on food was mainly based on stipend and gifts received. The type of food preferred by the people was diverse in nature; for it included rice, bean, chicken, pheasant, and seafood. However, there were dried or pickled forms too so as to prevent them from undergoing decay. Second, it throws light on the fact that people expended food mainly as a salary for servants. People utilized the income from selling such food items to purchase goods and land. They also used the same either to donate for a funeral or wedding purpose. Third, it records the fact that day-to-day purchase of groceries was mostly based on gift(s) for someone close to them such as a neighbor, colleague, relative, or student. Further, such gifts included small groceries, food items, and clothes. Fourth, based on the data available in the diary, it seemed likely that the gentry families laid emphasis on the customary formalities of a family dating back to as early as the late 16th century. Finally, the document also records the fact that noblemen of the *Chosun Dynasty* had a notion that they had to extend warmth and affection by presenting generous gifts to their guests at home. Noblemen during that period were very particular in welcoming their guests as they believed that this approach alone would testify their status as noblemen.

Key Words: *Miam's diary*, food culture, *Chosun dynasty*, nobility, 16th century

## 1. 서론

최근 한국 음식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한식세계화 정책으로 한식의 이미지가 새롭게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식세계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식이 국내외 세계인들이 즐기는 음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문화코드를 접목시켜 재창조되고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Kim & Chung 2013).

한식의 건강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한식의 맛과 영양

가만으로는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꿈과 감성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와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음식에 관한 고유의 이야기를 찾는 스토리텔링 작업은 한국음식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음식문화에 대한 연구는 문화 전체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총체론적 관점이 중요한데, 이는 타문화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바라보아야 음식문화가 역동적으로 이해되고 살아있는 구체적인 문화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Kim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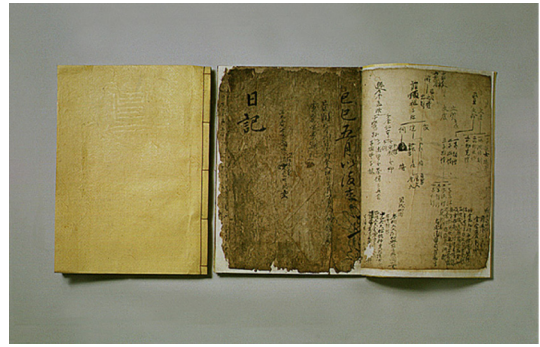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통음식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소재로서 조선시대 일기형식의 고

\*Corresponding author: Mi-Hye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oseo University, 165, Asan, Chungnam, Korea  
Tel: +82-41-540-9663 Fax: +82-41-548-0670 E-mail: kimmihye92@hoseo.edu

문헌 가치에 주목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국가의 공식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고, 2011년 외규장각 의궤와 일본 궁내청 의궤의 반환을 계기로 조선시대 기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과 같은 일기류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개인이 남긴 방대한 일기류 자료 또한 음식스토리텔링 소재로서 특히 주목할 분야이다. 「미암일기」는 여가생활, 관직에 대한 집념 등 16세기 생활사에 대한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서 조선 중기 생활사 연구에 큰 단서를 제공해 주는 자료이다. 또한 한 개인의 모습을 통하여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도 유용한 자료가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암일기」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문학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연구(Song 1996)로 서지적 고찰과 사료적 가치를 규명하려 하였다. Yoon(2006)은 「미암일기」에 나타난 복식관련 내용들을 파악하고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조선중기인 16세기의 사대부들의 일상복장을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Jeong(2003)은 12종류의 일기 내용을 분석하여 16, 17세기 사대부 주택의 공간 구성과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보고 당시의 제례와 접객방식의 변화가 주택의 공간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려고 하였다. Kim(2001)은 「미암일기」에 나타난 의료상황에 주목을 하였으며 서울과 지방의 의료생활의 차이를 미시적인 접근으로 연구하였다. Lee(1995)는 당시 양반관료의 경제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개인경제를 유지하였으며, 급여는 어떻게 받았으며 재산은 어떻게 증식시켰고 축소가 되었는지를 「미암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미암일기」에 관한 연구는 일기문학으로서의 제고(提高)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연구를 비롯하여 당시의 의료 환경, 재산증식 등을 다룬 인문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당시 주택의 공간 변화에 대한 건축공학적인 연구, 복식을 중심으로 다룬 의류학적인 연구, 현대의 일기교육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 생활사 전반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기의 내용에 대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생활풍속 중 가장 중요한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생활과 문화에 관한 연구는 전무(全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암일기」속 생활풍속 중 음식문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스토리텔링 소재로 개발하여 조선 중기 음식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감수성에 부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치사가 아닌 가계의 수입지출, 집안잔치, 혼례풍습, 세시풍속 등 집안 대소사를 세세히 기록한 「미암일기」를 분석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살아있는 전통음식 이야기를 읽어 내고자 한다. 사료 「미암일기」속에 등장하는 조선 중기 전통음식의 문화적 이해는 한국음식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콘텐츠화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Figure 1> 柳希春 眉巖日記

## II.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조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眉巖日記草」는 16세기 유학자 柳希春(1513-1577)이 충남 은진 유배에 있을 때인 선조 즉위년(1567) 10월 1일부터 죽기 직전인 선조 10년(1577) 5월 13일까지 무려 11년간 쓴 친필일기이다. 본래 14책이었다고 전해지나 실본으로 현재 11책만 남아 있으며, 일기 10책과 미암과 덕봉의 시문으로 모은 부록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암일기」는 보물 260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한지에 친필 초서로 쓴 일기를 1936-1938년 조선사편수회에서 5책으로 편집하고, 현재 보물 제260호로 지정되어 종가인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모현관에 기타 유물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매 책 다르나 평균 39.5×31.5 cm이다. 「眉巖日記草」에는 속자가 간혹 사용되었고, 중간에 파손 마멸된 자구와 약간 빠진 것도 있다(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8). 「미암일기」는 조선시대의 개인일기로는 가장 방대한 것으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며, 이이(李珥)의 경연일기와 함께 선조실록의 기사사료(記事史料)가 되기도 했다.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상태와 풍속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방면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 받고 있다(Lee 2008).

본 연구에서 11년간 전체 기록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조 즉위년 丁卯年(1567年) 10월부터 다음해인 戊辰年(1568年) 9월까지 1년간의 일기내용을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선조 즉위년(1567년) 10월부터 다음해 무진년(1568년) 9월까지의 유희춘이 19년 동안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성균관 직강(直講)에 부임하였다가 홍문관 교리(校理)로 옮기게 된 기간이다(Woo 2010).

### 2. 조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을 통한 고찰 연구로서 담양향토문화연구회에서 번역, 발간한 「미암일기」 2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미암일기」는 16세기 대표적인 호남사림 사대부의 것이기 때문에 당시 양반가의 생활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했던 그 이하의 사람

들의 이야기가 간혹 등장할 뿐 이 일기 내용을 16세기 전면적인 특징으로 일반화하기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일기는 쓴 개인의 시각으로 파악된 것이며, 일기 작성자의 집필원칙, 경험의 강도, 심정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연구방식보다도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생활에 관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시대 음식생활의 특징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III. 결과 및 고찰

미암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은 대표적인 호남 사림파에 속한다. 16세기는 성리학에 기초한 사림파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시기이다. 이들은 당시 정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른바 훈구파와의 치열한 갈등 속에서 주자학적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림파에 대한 훈구파의 탄압으로 여러 차례 사화가 일어나 많은 사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백성들의 삶은 궁핍해져 갔다. 율곡 이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호, 호남 사림의 경우는 영남 사림과는 반대로 주기론에 입각하여 자연을 바라보는데, 그들은 이(理)라는 것은 물(物)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물속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밝혀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이를 찾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Kim 2010). 즉, 자연을 이에 도달하는 매개적 통로로 인식한 주리론적 사유 방식이 아닌 리(理)를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즉물적(卽物的) 자연인식 양상을 보이는 것이며, 이러한 사상은 「미암일기」 속에 드러나는 현실주의적 성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미암일기」의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집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이다. 미암은 살림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집안에 나고 드는 물건들을 매일같이 일기에 꼬박 꼬박 기록하곤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16세기 양반가의 살림 규모와 특성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다. 본 고(考)에서는 「미암일기」 丁卯年(1567年) 10월부터 다음해인 戊辰年(1568年) 9월까지 1년간의 일기내용을 사계절로 나누어 분석하여 각 시기별 음식문화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미암일기」 시대적 배경인 16세기는 농경사회로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집안 행사나 식품 수입, 지출의 패턴이 비슷한 양상일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 1. 선물경제 시대 재화(財貨)로서 식품 수입: 1567년 11월-1568년 1월 겨울철 수입을 중심으로

미암의 수입 내역으로는 관직생활의 대가로 받는 녹봉과 찬품(饌品), 지방관의 증여와 이웃들의 선물, 그밖에 임금의 하사품, 선상 대립가, 노비신공 등이 있었다. 당시는 서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선물경제 시대였다(신 2006).

1567년 11월부터 1568년 1월까지 겨울철 3개월간 미암가에서 받은 식품 수입내역이 대략 212건 정도이다<Table 1>. 곡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어패류 66건, 육류가 36건, 과일류가 14건, 해조류가 10건, 양념류가 8건의 기록을 보였다. 단일 품목 중 가장 많은 기록을 나타낸 품목은 쌀이 42건, 콩이 24건이었다. 겨울철이라 보관이 용이하며 식량과 재물이 되는 곡류가 가장 많았으며 채소류의 이동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엔 도량형이 일정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1홉(合)은 한 움큼(1/10 되), 1되(升)는 10홉(1/10 말), 1말(斗)은 10되, 1섬(石)은 10말 정도이다. 1섬(石)은 짚으로 엮어 곡식을 담는 가마니와 유사한 개념으로 무게의 단위이기 때문에 곡식 종류와 시대,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다(Kim & Na 1994).

1567년 11월부터 1568년 1월까지 겨울 한철 3개월간 수입된 식품류 중 곡식의 양은 쌀 50섬, 콩 24섬 8말, 메밀 3말 이상, 깨 2섬 8말, 밀가루 5말, 좁쌀 2섬, 보리 1섬 정도였다. 육류는 멧돼지 4마리 정도, 닭 22마리 이상, 노루 4마리, 소고기 1마리 이상, 꿩 24마리 이상, 오리 1마리 이상, 돼지 1마리 이상의 양이 수입되었다. 어패류는 전복 15집 80개, 오징어 10집, 조기 1동 20속, 민어 5마리, 송어 3속 78마리, 석화 6말, 은어 140마리, 청어 5관 7두름, 홍합 2말, 건어 70속 15마리 이상, 낙지 11속 4첩, 문어 3속 2마리, 해삼 1마리 이상, 건준치 100마리 었다. 해조류는 감태 20동 30줄 50조, 미역 20동 20조, 해의 14집 30줄이었다. 과일류는 유자 39개 이상, 감 9집 17개 이상, 감귤 40개 이상, 밤 2말이었다. 기타로 꿀 2말 이상, 소금 4속, 참기름 1말 이상의 양이 미암가로 수입되었다. 동이라는 단위는 꽃감은 100집, 조기와 비웃은 2,000마리 정도이다. 못은 한 덩이씩 만든 묶음을 일컫는데, 생선 10마리, 미역 10장, 자반 10개 등이 있다. 접은 마늘이나 감은 100개, 톳은 김 100장, 두름은 조기나 청어 20마리, 손은 생선 2마리 정도를 뜻한다.

#### 1) 곡식이나 찬품으로 지급 받은 녹봉(祿米)

조선 중기 대개 녹봉은 3개월 단위로 받았는데, 중국 사신이 오거나 흉년이 드는 등 나라에 일이 있으면 조금씩 감해지기도 하였다. 「미암일기」 1567년 11월 12일자 기록에도 ‘戶曹(호조)의 關內(통지문)를 보니, 나라에 큰 변도 있고 天使(중국 사신)도 오고하므로 戊辰(선조2년)年의 春夏秋(춘하추)의 녹봉을 각기 米 1石씩을 감하기로 한다고 했다’고 기록되었다.

「미암일기」 1568년 1월 5일자 기록에는 ‘들으니 監司(감사)가 전일에 靈光(영광), 高敞(고창), 任實(임실), 谷城(곡성) 4툰에 영을 내려, 담양의 집에 食物(식물)을 보내게 했었는데 4툰에서 각기 쌀, 콩의 섬이 오기로 되었으나 영광, 임실, 곡성에서만 각기 쌀, 콩의 섬이 오고 고창만은 없었다 한다’고 하였다. 녹봉의 형태가 주로 쌀, 콩 등의 식량과 현물 가치가 있는 곡식류임을 알 수 있다.

<Table 1> Seasonal income figures of Miam families in winter (1567年 11月-1568年 1月)

分類	收入內譯	件數	數量
穀類	米 쌀 4말, 쌀 1말, 쌀 2말, 쌀 4말, 백미 2섬, 백미 2섬, 백미 1섬, 중미 1섬, 백미 1섬, 중미 2섬, 백미 10말, 백미 1섬, 정미 2섬, 중미 1섬, 중미 1섬, 백미 1섬, 쌀 3말, 쌀 5말, 정미 2섬, 벼 5섬, 백미 1섬, 정미 1섬, 쌀 2섬, 중미 1섬, 쌀 1섬, 쌀 1섬, 쌀 1섬, 쌀 1섬, 쌀 6섬, 백미 2말, 백미 3말, 떡쌀 5말, 찹쌀 5말, 쌀 1섬, 중미 1섬, 백미 10말, 백미 1섬, 중미 1섬, 백미 1섬, 백미 1말, 찹쌀 5말, 백미 2섬	42	50石
	豆 콩 2말, 콩 2말, 콩 2말, 콩 2섬, 콩 1섬, 콩 1섬, 콩 5말, 콩 1섬, 콩 1섬, 콩 1섬, 콩 1섬, 콩 20말, 콩 2섬, 콩 1섬, 콩 1섬, 콩 1섬, 콩 1섬, 콩 1섬, 콩 1섬, 콩 1섬, 콩 2섬, 콩 1섬, 콩 1섬, 콩 1섬	24	24石 8斗
	메밀쌀, 메밀쌀 3말	2	3斗 以上
	참깨 4말, 참깨 5말, 깨 3말, 참깨 3말, 들깨 3말, 참깨 5말, 참깨 5말	7	2石 8斗
	麵粉 밀가루 5두	1	5斗
	粟 조미 2석	1	2石
	麥 보리 1석	1	1石
	合		78
肉類	멧돼지, 멧돼지 1마리, 생 멧돼지 1두, 멧돼지 뒷다리 하나	4	3首 以上
	닭 2마리, 닭, 닭 3마리, 닭 3마리, 닭 3마리, 닭 5두, 닭 5수	7	22首 以上
	생 노루 1두, 생 노루 1마리, 노루 뒷다리, 생 노루 1마리	4	4首
	소고기, 육우(황육), 소 앞다리 1부, 소갈비 1짜, 소 가슴부위 1부, 소다리, 염통, 천엽	8	1首 以上
	생 꿩, 꿩 2마리, 생 꿩 1수, 꿩, 생 꿩 5두, 산 꿩 2마리, 말린 꿩 2수, 꿩 3수, 꿩 2수, 꿩 5수, 생 꿩 3마리	11	24首 以上
鳧 생 오리	1	1首 以上	
豚 찢 돼지	1	1首 以上	
合		36	
魚貝類	鰻 익힌 전복 50개, 염 전복 50개, 생 전복 25개, 생 전복 10개, 전복 3집, 생 전복 70개, 전복 1집, 전복 1집, 생 전복 50개, 생 전복 1집, 생 전복 100개, 전복 3집, 전복 1집, 생 전복 30개, 전복 1집, 생 전복 50개, 생 전복 10개, 생 전복 35개	18	15貼 80個
	오징어 10집	1	10貼
	굴비 1동, 말린 조기 20속	2	1同 20束
	민어 5미	1	5尾
	秀魚 숭어 1/2마리, 말린 숭어 5마리, 숭어 5미, 생 숭어 10마리, 생 숭어 10마리, 숭어 2마리, 생 숭어 5마리, 말린 숭어 5마리, 치어 2마리, 생 숭어 10마리, 말린 숭어 10미, 생 숭어 2미, 생 숭어 2미, 건 숭어 4미, 숭어 3속, 생 숭어 2미, 동어 3마리	17	3束 78尾
	石花 대 석화 1두, 석화 3두, 석화 1말	3	6斗
	銀魚 은어 100마리, 염 은어 40미	2	140尾
	靑魚 청어 4두름, 청어 5관, 청어 3두름	3	5貫 7級
	紅蛤 홍합 2말	1	2斗
	乾魚 건어, 건어 5다발, 건어 10뭇, 건어 5뭇, 건어 10속, 건어 3속, 건어 10속, 건어 10속, 건어 30속, 건어	10	70束 15뭇 以上
	文魚 낙지 2속, 낙지 6속, 생 낙주 4첩, 생 낙지 3속	4	11束 4貼
	海蔘 문어 3속, 문어 2미	2	3束 2尾
海參 해삼	1	1尾 以上	
건 준치 100미	1	100尾	
合		66	
海藻類	甘苔 감태 30줄, 감태 20동, 감태 50조(10매*50조)	3	20同 30줄 50條
	藿 미역 20조, 미역 20동	2	20同 20條
	海衣 대 해의 3집, 해의 10집, 정 해의 10줄, 침 해의 20줄, 대 해의 1집	5	14貼 30줄
合		10	
果實類	柚 유자 20개, 유자 10개, 유자, 유자 9개	4	39個 以上
	柑橘 홍시 1쟁반, 꽃감 3집, 꽃감 2집, 홍시 17개, 꽃감 2집, 꽃감 2집	6	9貼 17介 以上
	栗 감귤 10개, 밀감, 감귤 30개	3	40介 以上
	生 밤 2말	1	2斗
合		14	
其他	蜜 유청, 꿀 1말, 청 1말	3	2斗 以上
	鹽 소금 1속, 소금 1속, 소금 2속	3	4束
	油 참기름, 기름 1말	2	1斗 以上
	合		8

녹봉은 1556년(명종 11) 직전법(職田法)이 폐지된 이후 국가 관료에게 지급하는 주된 생활보장책이었다. 경국대전에는 1년에 네 차례 녹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관료의 녹봉으로 많은 재정이 지출되어 매년 군자(軍資)로 충당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한다(Sin 2010). 「미암일기」의 시대적 배경인 선조 시대엔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인지라 녹봉 지급이 여의치 않았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 유희춘의 경우에도 고위직 관료였음에도 집안에 거느린 식솔들이 많다보니 거의 매년 해남에 있는 농장에서 벼, 보리와 같은 양식을 운송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거나 지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암일기」 1568년 8월 2일자에는 ‘館吏(관리)가 또 秋等選上木(추등선상목: 秋期에 선발한 上品의 무명배) 18필을 가지고 왔다. 이는 3인의 價布(가포: 품삯)인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식량외에 면포도 녹봉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녹봉의 형태로는 곡식류 이외에 다양한 찬품류도 지급되었다. Lee(1995)의 연구에 의하면 선조 원년부터 선조 9년까지 연 114회에서 351회까지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그 내역은 쌀, 콩, 면포, 부채, 닭, 꿩, 어류 등 매우 다양하였다고 한다. 중앙 부서나 지방관들이 운송한 찬품들은 모두 부패를 막기 위해 말리거나 절인 형태였다.

## 2) 지방관의 수증(受贈)에 의한 찬품 해결

녹봉은 관료사회의 기본이었지만 녹봉만으로 당시 양반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양반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녹봉보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방관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물품인 수증(受贈)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Shim 2012). 「미암일기」에 기록된 수증품도 곡물류를 비롯하여 면포, 문방구류, 포육류, 어패류, 찬물류, 과채류, 견과류, 약재류 등 일상용품에서 사치품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는 단순한 선물 수수가 아니라 양반사회에 일상화된 경제 관행이었다.

「미암일기」에 기록된 지방관들의 수증 물품 사례를 살펴 보겠다. ‘恩津(은진)의 守宰(수재) 金君士元이 생꿩 두 마리와 말린 민어 5마리를 보내왔다(1567년 10월 30일)’, ‘洪州牧使(홍주목사) 申湛(신담)이 乾秀魚(말린송어) 5마리를 보내왔다(1567년 11월 15일)’, ‘泗川縣監(사천현감) 鄭承憲이 익힌 북(전북) 50개를 보내왔다(1567년 11월 15일)’, ‘長興府使(장흥부사) 趙君希文(조군희문)이 사람을 시켜 白米 10斗, 콩 5斗, 낙지 2束, 소금친 전복 50개, 참깨 4斗를 보내왔다(1567년 11월 29일)’, ‘寶城郡守(보성군수)가 監司(감사)의 영으로 中米 콩 각 1石과 乾魚 10束, 생숭어 10마리, 淸酒 한동이를 실어 보내고 또 스스로 中米 콩 각 한 섬, 생숭어 10마리, 문어 3束, 꽃감 3점을 보내왔다(1567년 12월 初5일)’, ‘어제는 熙川(희천)의 守宰(수재) 金水生(剛淑)이 꿩 3首(수)를 보냈는데 오늘은 渭原(위원)의 守宰(수재) 崔潤湖(최윤호)가 꿩 2首를 보내왔다(1568년 1월 26일)’와 같이 매우 많은 사례에

서 다양한 물품들이 전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곡류와 함께 특히 귀한 어패류가 수증(受贈) 물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567년 11월부터 1568년 1월까지 겨울철 미암가의 수입내역에도 확인할 수 있다<Table 1>.

그 외 1567년 10월 30일 기록에는 ‘坡州牧使(피주목사)에게 청하여 채소와 익숙한 솜씨 지닌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다’와 같이 채소와 같은 찬물(饌物)류 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사람까지도 지방관들에게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벽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兩位(양위)께 제사를 모셨다. 祭物(제물)을 엄숙하게 갖추었으니 城主(성주)가 마련해 보내준 덕이다(1567년 12월 初9일)’ 기록에서 보듯 집안의 제례를 지내기 위한 제물까지도 지방관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2. 선물경제 시대 재화(財貨)로서 식품 지출: 1567년 겨울철과 1568년 가을철 지출을 중심으로

「미암일기」를 살펴보면 16세기 중, 후반 민간의 화폐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기에는 생활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서적, 종이류, 어물류, 약재류, 기타 생활용품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답까지도 구매하는 대가로 綿布와 쌀(米)이 화폐로써 지불되고 있다. 면포(약39%)와 쌀(약 27%)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용한 지불수단이었다(Lee 2004). 쌀로 대표되는 곡물의 경우도 米(미), 祿米(록미), 稻(벼), 白米, 中米, 太, 麥으로 다양하였다. 특히 소액의 생활용품 거래에는 면포보다는 주로 쌀의 사용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67년 11월부터 1568년 1월까지 겨울철과 1568년 8월부터 10월까지 가을철 미암가에서 지출한 지출내역을 보면 <Table 2>와 같다. 6개월간 미암가에서 식품으로 지출된 건수만 보아도 100건이 넘는다. 지출 내역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비를 비롯해 노비월급과 의복비, 선물에 대한 답례와 살림장만 비용, 집세, 애경사에 대한 부조 등이 있었다. 지급된 식품도 쌀, 콩, 메밀쌀과 같은 곡류, 말린 꿩, 노루 뒷다리 등의 포육류, 전복, 오징어 등의 어패류, 꽃감, 유자 등의 과실류, 소금, 참깨, 꿀, 생강 등의 양념류뿐만 아니라 청주 등 주류까지도 매우 다양한 품목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 노비와 식솔들의 사료(朔料)로 지출

「미암일기」에서 살펴보면 노역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화폐 지불 실태가 잘 나타나 있다. 노역, 서비스 내역은 대체로 奴婢 朔料(노비 사료), 서책의 書寫(서사: 글을 베껴)와 粧冊(장책: 책을 꾸며서 만듦) 등의 제작, 목수와 기와공 등의 품삯으로 지불되었다. 노역, 서비스에 있어 화폐사용 실태를 보면 지불수단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쌀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수를 접하고 있다.

<Table 2> Seasonal expenditure figures of Miam families from fall to winter (1567-1568年)

日時	受領人	持出内譯	日時	受領人	持出内譯
1568.08.01	침동지택	말린 평, 말린 대구, 말린 대하 1두름	1567.12.01	남원 누이	참깨 3두, 꿀 3승, 소금 4두
1568.08.03	서리	백미 5되, 쌀 1말	1567.12.08	윤생원	곶감 1첩
1568.08.03	나침정택	어육의 1푼	1567.12.11	오(吳)누이	콩 1석, 쌀, 콩 주찬
1568.08.09	김계남	전복 1꼬지	1567.12.11	수사 임공진	생전복 80개
1568.08.09	여침정세침	전복 3꼬지	1567.12.11	박연중(朴連宗)	밀감, 오징어
1568.08.09	비(婢) 만덕	백미 3되	1567.12.13	남원 오누이	백미 2석, 콩 2석
1568.08.11	모(母)씨	새 쌀 5되	1567.12.13	첩의 집(첩가)	백미 2석, 콩 3석
1568.08.16	진상회	생선	1567.12.13	담양 노비들	벼 35두
1568.08.18	권수	전복 5꼬지	1567.12.15	강진 첩가	떡 쌀 5두, 찹쌀 5두, 참깨 5두, 정미 2석, 콩 2석, 청주 2동이, 멧돼지 1마리, 닭 5두, 생 낙주 4첩, 생 전복 1첩, 생 송어 10마리
1568.08.22	곽대방	생선과 쌀	1567.12.15	첩모(妾母)	콩 1석
1568.08.23	김기북	전복	1567.12.16	임석천 공	생 전복 10개, 생 노루 뒷다리 1개
1568.08.23	이정원록의 첩	말린 민어 1미	1567.12.16	김씨	조기 1숙
1568.08.24	외교서관	백미 1말	1568.01.02	최인길	쌀 5말
1568.08.25	홍반군망의 노(奴)	쌀 1말, 생선	1568.01.03	피치	쌀 1말
1568.08.25	홍근	말린 민어 2미	1568.01.04	윤자동	중미 5말
1568.09.03	김중경	전복	1568.01.04	송삼판	유자
1568.09.03	서사관 이정	말린 민어 1미	1568.01.04	악안군수 정공필	기름 1말, 꿀 1말, 전복 1첩, 민어 5미, 송어 3숙, 건어 10숙, 새우젓 3되, 잡것 1말
1568.09.10	여혼의 처(妻)	전복 2꼬지	1568.01.04	驛子 朴千根	백미 2말, 건어 1숙
1567.10.05	충순(忠順) 집	메밀쌀 2두, 찹쌀 2두	1568.01.05	李强邁	백미 1두, 건어물
1567.10.09	임천 수재	유자 2개	1568.01.05	강선원	찹쌀 5말, 참깨 5말, 청 1말, 염장 은어 40미
1567.10.10	朱希閔(주희민)	생콩 2두, 누룩 1작	1568.01.06	옥과	생 노루 1마리, 백미, 콩 각 1섬, 생밤 2말
1567.10.13	익산 소참봉	대해의(大海衣) 4장	1568.01.07	송삼판	노루의 뒷다리, 생 전복 10개
1567.10.15	하례객(서울 유생)	백미 2석 5두, 콩 1석	1568.01.07	순창	백미 1석, 중미 1석, 술 1동이, 닭 5수, 청어 3두름
1567.10.17	홍주 배수	밀가루 1말	1568.01.07	송삼판	노루 뒷다리, 생 전복 10개
1567.10.17	해남 석천 포작부	콩평승 3석 10두	1568.01.07	이형	쌀4석5되, 솜(綿) 10필, 콩 2석
1567.10.18	주희민	메밀쌀 2두, 팥 2두	1568.01.08	한매	건어 3마리
1567.10.20	남원 매씨집(妹氏)	소금 9두, 찹쌀 5두, 누룩 10작, 청어, 민어	1568.01.08	수재 송중립	백미 10말, 멧돼지 뒷다리 1개, 생 송어 2미, 석화 3그릇, 홍합 2말, 송어젓 4연, 별주 6동이
1567.10.20	최영의 모씨택	소금 6두	1568.01.08	김판교언거	생 전복 10개
1567.10.20	식모(각기)	중미 2두, 콩 3두씩	1568.01.09	유향별감 존진운	쇠갈비(胸) 1작, 천엽(胷) 1부, 간 1부, 닭 2수, 곶감 1첩, 술 1동이
1567.10.20	관노(각기)	중미 3두, 콩 3두씩	1568.01.14	주재 한수진	쌀 5말, 콩 6말
1567.10.29	서울이정랑의처	백미 3말, 참깨 2말	1568.01.14	고부군수 존군	꿀 3되, 기름 5되, 밀가루 5말, 술쌀 1석
1567.10.30	연지동 이정랑택	백미 1말, 생 평 1마리, 민어 4마리, 꿀 1되	1568.01.15	김적석	벼 1석
1567.10.30	김모제상공택 중	백미 1말	1568.01.15	이입천	쌀 1석, 콩 1석
1567.10.30	김부운, 유극임	유자 5개씩	1568.01.15	부백	쌀 10말, 콩 10말
1567.11.03	서울연개손처	백미 1두	1568.01.15	서익의 모씨	소금 1석
1567.11.07	서울 최상중	유자 2개	1568.01.15	비옥순	쌀 2말, 콩 2말
1567.11.07	서울이군정현	쌀 2되	1568.01.23	허(許)	백미 2말, 단간장, 좌반유 1되
1567.11.16	서울 이정현	쌀 5두, 콩 5두	1568.01.23	충청 역자	콩
1567.11.16	서울 권박사	콩 5두	1568.01.24	김의운	생강 2되
1567.11.23	임실 누이	백미 2섬, 콩 2섬	1568.01.25	이정원록	생강 2되
1567.11.24	담양 김응상 처	쌀 1석, 콩 1석	1568.01.28	수재 허현	곶감 2첩, 말린 평 2수
1567.11.29	담양 이형개 자	찹쌀 2두, 메밀쌀 2두, 깨 1두			

노비와 식솔들에게 식료를 지급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얼마 전에 白米 2石과 콩 2石을 吳妹(오매)에게 드리고 白米 2石과 콩 3石을 妻家에 주고 벼 35斗를 우리집 奴婢와 동생집 奴婢에게 나누어 주었다(1567年 12月 13日)’, ‘쌀 4斗를 漢守(한수)의 妻와 늙은 중 萬非(만비)에게 나누어 줬다(1567年 12月 19日)’, ‘奴婢(노비)에게 다음 달의 料(료)를 주었는데 중의 자식에게 쌀 3斗 머슴의 자식에게 쌀 5斗씩을 줬다(1568年 1月 30日)’, ‘奴婢(노비)에게 朔料(삭료: 한 달의 샅이)를 줬다. 머슴 3명에게는 각기 5斗를 주고 2婢에게는 각기 3斗를 줬다(1568年 6月 初3日)’. 또한, 일용직 인부들에 대한 노임으로도 쌀이나 양곡을 지급하였다. ‘通計(통계)를 해보니 前後(전후) 2日 동안 인부를 써서 못을 파느라 쌀이 74斗가 지출되었다(1567年 12月 12日)’, ‘충청도의 驛子(역자)와 마부들에게 모두 양곡 콩을 주었다(1568年 1月 23日)’. 이와 같이 조선중기 노비의 식료나 물품의 구매와 같이 노역, 서비스의 지불수단도 대체로 쌀이나 콩과 같은 곡류 사용이 현물처럼 많다는 특징이 있다.

## 2) 생활물품 구매나 토지 구입비용으로 지출

「미암일기」의 의약관련 기사는 대략 570건 정도라고 한다(신 2006). 「미암일기」에 나타난 조선중기 사대부들의 의약 생활 특징은 질병이 발생하면 침술보다는 의약을 이용했고, 의약 이용의 장애를 호소한 적이 거의 없고, 고위 관직자들은 소속 관아에서 의약을 쉽게 이용하였고, 중앙정계의 실력자나 지방관들이 계속해서 남약을 비롯한 약재를 선사했고, 내의원의 명의를 비롯한 적지 않은 의원이 진료 요청에 응했으며 그들은 때때로 인사에서 혜택을 입고자 하였다.

또한 유희춘은 자신과 가족의 질병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친척과 친지의 의약 이용까지 정성껏 챙겼다. 약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지불이 있었고 그것은 쌀이나 콩 등의 현물로 이루어졌다. ‘이날 韓副辛(한사신)이 약을 가지고 찾아왔다. 나는 쌀, 콩 각기 5斗(두)씩을 줬다. 이는 실로 大學衍義補(대학연의보)를 준데 대한 보답이다(1567年 11月 16日)’.

「미암일기」에는 당시 교서관에서 간행하는 서적의 내용뿐 아니라 서적을 간행하는 절차와 과정 및 유통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Woo 2010). 또한, 지방관들로부터 지방관본을 선물로 받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郭大方(곽대방)이 考事撮要(고사촬요)를 修粧(수장)해가지고 왔기에 생선과 쌀로 그 수고의 대가를 줬다(1568年 8月 22日)’, ‘書寫官(서사관) 李精(이정)이 와서 책의 제목을 썼다. 말린 민어 1尾(미)로 수고에 사례했다(1568年 9月 初3日)’와 같이 책을 묶거나 단장할 때의 수고비로서 쌀이나 생선 등의 찬물로서 대가를 지불하였다.

「미암일기」에서 전답은 6차례에 걸쳐 구매되었으며 그 대가로는 면포 등으로 3차례, 쌀 등으로 3차례 각각 지불하

고 있다(Lee 2004). ‘쌀 4石(석) 5升(승)과 면 10疋(필)과 콩 2石으로 李衡(이형)의 논을 샀다. 그것은 북쪽 울타리의 북편에 있는 것이다(1568年 1月 初7日)’의 기록에서 보듯이 논을 구입하는 대가로 쌀과 콩과 같은 현물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

유희춘은 서울에서 관료생활을 하는 동안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았으므로 매달 쌀이나 찬물로서 집세를 납입하기도 하였다. ‘포육 1束(속)과 말린 꿩을 沈同知希容(침동지희용)의 집에 보냈다. 달마다 饌味(찬미)를 몇 번씩 보내니 집을 빌려준데 대한 보답인 것이다(1568年 7月 17日)’.

## 3) 부의나 혼수 부조금으로 지출

「미암일기」에는 16세기 관, 혼, 상, 제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정치이념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사대부가에 권장하였지만, 실제 ‘주자가례’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시기였으며 우리 고유의 풍속이 혼용되어 치러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반친영과 목안(木雁) 대신 산 기러기의 사용이 흔했던 것으로 보인다(Song 2010).

‘大燭(큰 초) 한쌍, 메밀쌀 2斗, 찹쌀 2斗를 忠順(충순)의 집으로 보내 장례비용에 부의를 했다(1567年 10月 初5日)’, ‘洪僉知仁慶(홍첨지인경)의 喪事(상사)에 扶助(부조)를 하자는 回文(회문)이 왔다. 즉시 쌀 5升(승)을 줬다(1568年 5月 20日)’, ‘들으니 平安兵使(평안병사) 金公秀文(김공수문)의 상여가 오늘 저녁에 홍제원에 당도한다고 하면, 내일 새벽에는 城(성)을 지난다는데, 바빠서 찾아가 절을 하지는 못하고, 그 繼後子(계후자에게 弔狀(조상)을 쓰고 아울러 생강 1升(승)과 白紙(백지) 1권으로 부의를 했다(1568年 8月 20日)’.

장례비용에 대한 부의로서 쌀, 메밀쌀, 찹쌀과 같은 곡류가 대부분이었으며 생강과 같은 양념류도 장례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암일기」에는 혼사에 따른 부조금 지출도 현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물로는 참깨, 쌀, 콩과 같은 곡류와 함께 꿀도 부조금으로 사용되었다.

‘長興伯(장흥백)이 나의 請(청)에 의하여 文僉使亮(문첨사량)의 妻 尹氏(윤씨)와 林正海(임정해)의 妻氏(처씨)에게 食物(식물)을 주고 또 李義(이의)의 집의 사위를 맞음에 부조하여 참깨 2두를 주었다(1567年 12月 24日)’, ‘약간 눈이 내렸다. 아침에 主宰(주재) 鄭君(정군)이 나의 청으로 인하여 李奉事(이봉사) 應福(응복)에게 쌀 1石과 제사에 쓸 油淸(꿀)을 주고 또 金仁厚(김인후)에게 혼수로 쓸 쌀과 콩 油淸을 주고 尹忠勇(윤충남)에게 쌀 콩 각 1石을 주었다(1567年 12月 26日)’.

이와 같이 조선 중기 양반들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의 애경사에 곡식과 양념류 등의 현물로서 부조를 하였으며, 화재를 당하거나 병이 들었을 때 소금이나 의복, 약재 등을 보내 주기도 하였다.

### 3. 마음(心)을 표현하는 선물(贈物)로서 식품: 1568년 5월-7월 여름철 수입을 중심으로

「미암일기」에 기록된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음식문화 특징은 반찬거리를 포함해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주로 가까운 사람들의 선물에 의해 충당하였다는 점이다. 「미암일기」에서 보면 이웃이나 동료, 친척, 문생 등은 거의 매일 같이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들은 자잘한 반찬거리에서 식량과 의복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보내왔다. 그때마다 미암도 다른 물건으로 보답하는 걸 잊지 않았다.

1568년 5월부터 7월까지 여름철 3개월간 미암가에서 받은 식품 수입내역은 대략 118건 정도이다<Table 3>. 곡류 13건(11%), 채소류 17건(14%), 육류 16건(14%), 어패류 53건(45%), 해조류 3건(3%), 과실류 14건(12%), 양념류 2건(1%)의 기록을 보였다. 그 중 어패류 선물이 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미암가에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희춘이 태어난 곳은 해남의 외가였다. 그러나 결혼해서 살림살이를 차린 곳은 담양에 있는 처갓집 근처였다.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관직에 나간 유희춘은 도성에 집을 빌려 생활 하였고, 사직 후에는 해남으로 가지 않고 담양으로 내려가 남은 생을 보냈다. 따라서 많은 친척과 지인들이 해남과 인근 해안가 지역에 살고 있었다. 따라서 담양이 내륙 지역이긴 하나 미암가에 수입된 선물 중 어패류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귀한 찬물로서 육류보다는 어패류 사용이 보편적이었고 선호되었음도 알 수 있다.

겨울철 수입내역 <Table 1>에는 보관이 용이하며 식량이 되는 곡류가 가장 많았고 채소류 선물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으나, 여름철 수입내역 <Table 3>에는 어패류가 가장 많았고 제철 신선한 채소, 과실류도 31건으로 선물로 많이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 원거리(遠距離) 지방관(地方官)의 선물(贈物)穀과 脯

조선은 증여 원리에 기반한 가족국가의 이념이 지배적이었다. 이념적으로 덕치주의의 이상을 표방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여를 통하여 국가 체제를 결속시킨 것이다. 국왕이 은혜를 표상으로 신하들에게 물건을 시혜(施惠)하고, 아래 사람들은 윗분들에게 물건으로 보은(報恩)하는 관계의 정서적 연쇄망이 보편적이었다(Kim 2009).

「미암일기」 내용의 대부분도 각종 물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입 물품의 대부분은 지방관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다.

‘本官이 宋監司를 보살펴주라는 말로 인하여 쌀과 콩을 각 1石씩 보내왔다(1567年 10月 初8日)’. 이와 같이 때로는 보살펴 주라는 청탁과 함께 쌀과 콩과 같은 선물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당시 곡물류는 화폐 역할을 하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지방관이 청탁을 목적으로 하는 선물로는 곡물류가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곡물류는 수확된 이후인 가을이나 겨울철에 특히 거래건수가 많았다.

‘남쪽 이웃에서 생평을 보내왔다. 蘇滄水使(소흠수사)가 보낸 것이 또 돼지포 2貼, 말린 송어 10마리, 오징어 5束이 있었다(1568年 5月 初4日)’, ‘羅州(나주)의 羅士沈(나사침)이 버선 두벌, 毛海衣(모해의) 1斗(두), 노루포 1大片(대편), 魚卵(어란) 1集(집)을 보내왔다. 士淳(사순)도 말린 평을 보내왔다(1568年 5月 6日)’, ‘江陵(강릉)의 前 祭訪(제방) 金訥(士仁)이 말린 평 1首를 보내왔다(1568年 5月 19日)’, ‘申時末(신시말)에 나는 直(직)에서 나와 집에 돌아오니 江原道(강원도)의 金監司就文(김감사취문)이 보낸 말린 평 2首, 편포 하나, 말린 문어 1尾(미), 홍합젓 1斗가 와 있다(1568年 6月 初9日)’.

찬물(饌物) 중 귀한 것으로 치면 육류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미암일기」의 기록에는 쇠고기 거래 기록이 많지 않다. 특히 <Table 3>은 여름철 부분이기 때문에 농번기 쇠고기 이용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여름철 지방관들이 사대부에게 보냈던 귀한 찬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이다. 1568년 여름철 육류 거래 총 16건 중 평이 10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한다. 평과 노루 등의 야생 고기가 포(脯)의 형태로 선물되어 졌음을 알 수 있다.

‘務安(무안)의 守宰(수재) 宋庭筍(송정순)도 올벼살 1石, 말린 大송어 1마리, 中송어 1마리, 송어알 4集(4器), 淸雪魚(청설어) 30개를 보내왔다(1568年 5月 7日)’, ‘全羅監司(전라감사) 宋公贊(송공찬)이 封餘(봉진의 나머지)의 鮓포 1개, 오징어 1첩, 인복(펜 전복) 5줄, 조기 굴비 2속, 말린 송어 1마리를 보내왔다(1568年 5月 12日)’, ‘17일에 靈光人(영광인)이 와서 石首魚(석수어: 조기) 100束과 仇里 50束과 어란젓 8斗들이 독과 작은 새우젓 4동이들이 독을 바치니 이는 尹君弘中(윤군홍중)이 보낸 것이다(1568年 5月 20日)’, ‘石城(석성)의 守宰(수재) 鄭麟壽(정인수)가 石首魚(석수어) 4束과 굴비 2束과 전어 2束을 보내왔다(1568年 5月 28日)’.

지방관이 보낸 귀한 찬물(饌物) 중 가장 많은 거래 물품은 바로 어패류이다. 송어, 송어알, 청설어, 오징어, 전복, 조기, 굴비, 새우젓, 전어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1568년 여름 한 철의 기록만을 보아도 53건 이상의 어패류가 지방관의 선물로 미암가에 수입되었다. 단일 품목 중에는 전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조기와 송어였다. 어패류는 주로 말린 포(脯)의 형태나 발효시킨 젓갈의 형태로 유통되었다.

#### 2) 단거리(短距離) 지인(知人)의 선물(贈物): 實과 菜

앞서 살펴보았듯이 멀리 있는 지방의 지방관은 유통과 보관이 용이한 곡식이나 어패류, 육류의 말린 포(脯)를 선물로 많이 보냈다. 하지만 「미암일기」에서는 지방관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의 선물 거래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1568년 여름철 지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에는 제철 과실과 채소들이 빈번히 기록되어 있다.

‘羅僉正宅(라첨정택)에서 西瓜(서과: 수박)을 보내오고 柳都致(유도치)가 수박 2개를 바쳐왔다(1568年 7月 11日)’, ‘漢江(한강)의 李元凱(이원개)의 妻(처) 安氏(안씨)가 수박을 보



<Table 3> Seasonal income figures of Miam families in summer (1568年 5月-7月)

分類	收入內譯	件數	數量		
穀類	米	올 벼쌀 1석, 벼 20석, 백미 10말, 백미 2석, 백미 1석, 새 쌀 3되, 새 쌀 1말, 새 쌀 2말, 새 쌀 5되	9	24石 13斗 8升	
	豆	콩 20말	1	20斗	
	麵粉	밀가루, 밀가루	2	目測不可	
	薏粉	율무가루 5되	1	5升	
	合		13		
菜類	生薑	생강 1봉	1	1封	
	瓜	오이, 오이 50개, 오이, 오이, 오이	5	50介 以上	
	茄子	가지, 가지	2	目測不可	
	石耳	석이	1	目測不可	
	椎	마고(표고) 1말, 표고 3되	2	1斗 3升	
	蒜	마늘 200개, 마늘 600본, 큰 마늘 150본, 마늘 3말	4	3斗 750本 200介	
	菜蔬	채소, 채소	2	目測不可	
合		17			
肉類	豚	돼지포 2첩	1	2貼	
	獐	노루포 1대편, 생 노루, 말린 노루, 생 노루고기 1덩이	4	4錠 以上	
		생 꿩, 말린 꿩, 말린 꿩 1수, 말린 꿩 1수, 말린 꿩, 말린 꿩, 생 꿩 1수, 말린 꿩 2수, 말린 꿩, 말린 꿩 2수	10	1尾 以上	
	角鷹	매 1두	1	1尾	
合		16			
魚貝類	鰓	전복 1첩, 전복 5줄, 생 전복 30개, 전복 7개, 생 전복 16개, 전복 5고지, 젓 담근 전복, 전복, 전복, 익힌 전복 1첩, 전복 15개, 전복 2첩	12	4貼 10줄 68介 以上	
		오징어 5속, 오징어 1첩, 오징어, 오징어, 말린 오징어 30마리	5	1貼 5束 30尾 以上	
		조기 20속, 조기 2속, 석수어 100속, 석수어 4속, 조기 8속, 대 석수어 15속, 굴비 2속, 굴비 2속	8	153束	
	銅盆魚	말린 돔 3마리, 말린 돔 2마리	2	5尾	
	錢魚	진어 2속	1	2束	
	俊魚	준어 3마리	1	3尾	
	民魚	민어 4마리, 생 민어 1마리, 말린 민어 2마리, 민어 2마리	4	9尾	
	秀魚	말린 송어 10마리, 말린 대 송어 1마리, 중 송어 1마리, 말린 송어 1마리, 말린 송어 4마리, 심수어(생송어) 5마리, 치어(송어) 1미	7	23尾	
	魚	두어 7마리	1	7尾	
	淸雪魚	청설어 30개	1	30介	
	魚	소금 저린 연어 50마리	1	50尾	
	紅蛤	홍합 1말	1	1斗 3升	
	乾魚	건어 4마리	1	4尾	
	조개	말린 조개, 조개	2	目測不可	
	文魚	문어 3마리, 말린 문어 1미	2	4尾	
	海蔘	말린 해삼 2말	1	2斗	
	鰓魚	인복 9마리	1	9尾	
	魚卵	어란 1척, 송어알 4척	2	5尺	
	合		53		
	海藻類	藿	미역 5동, 미역 1동, 미역	3	6同 以上
	果實類	櫻	앵두, 앵두	2	目測不可
西瓜		수박, 수박 2개, 수박, 수박, 수박 2개	5	4介 以上	
甘瓜		참외	1	目測不可	
葡萄		포도	1	目測不可	
綾衾		능금, 능금 200개	2	200介 以上	
合		14			
其他	蜜	꿀 2되	1	2升	
	油	기름 1말	1	1斗	

내왔다. 朴舜元(박순원)이 일찍이 수박을 보냈더니 또 찾아왔다(1568年 7月 13日)', '權詠得卿(권영득경)이 좋은 먹 5丁(정)과 가지, 오이, 각각 백개와 참외, 수박을 보내왔다(1568年 7月 19日)', '이웃에 사는 李成弼(이성필)이 포도를 보내 오고 卿萬(경만)이 능금을 보내왔다. 尹軫(윤진)이 왔다가 갔고, 朴舜元(박순원)이 수박 2개를 보내왔다(1568年 7月 26日)', '金化(금화)에 사는 前(전) 慶興守令(경흥수령) 朴彥瑾(박연근)이 아들 玉(옥)을 보내 능금 2百(백)개를 보내왔다(1568年 7月 27日)', '아침에 李元凱宅(이원개택)에서 앵두를 보내오고 羅僉正宅(라침정택)에서 밀가루와 牛毛를 보내왔다(1568年 5月 13日)'.

1568년 여름철 선물 받은 과실류로는 앵두, 수박, 참외, 포도, 능금 등이 14건 이상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 수박이 5건으로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였다. 「미암일기」 기록으로 보아 이전 시기에 유입된 외래 작물인 수박과 능금이 조선 중기 당시 보편적으로 식용되었으며 선물로 이용될 정도의 귀한 과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羅僉正宅(라침정택)에서 채소를 보내왔다. 沈同知(침동지)의宅에 魚(송어)를 보냈다(1568年 5月 初8日)', '旺心里(왕심리)의 朴千根(박천근)이 채소를 가지고 왔다(1568年 7月 初10日)', '李麟壽(이인수)가 오이 50개를 가지고 왔다(1568年 6月 初 7日)', '羅僉正兄(라침정형)이 오이와 알을 보내왔다(1568年 5月 20日)', '南大門(남대문)밖 高殷栗(고은울)의 妻(처)가 오이를 보내왔다(1568年 6月 11日)'.

채소류도 17건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오이가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지, 석이, 표고 등이었고, 마늘, 생강과 같은 제철 양념류도 선물로 이용되었다. 그 외 구체적인 종류를 기록하지 않은 채소(菜)류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 4. 사대부들의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 1568년 봄철과 여름철 지출을 중심으로

「미암일기」 1568년 2월과 7월 사이 기록된 지출 내역을 중심으로 조선 중기 양반가의 제사와 접빈객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례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 절차로서 조상 숭배를 도덕적 실천이라 여긴 조선조에서는 사례(四禮) 중 으뜸으로 여겼다. 관혼상제는 조선 건국 이후 태조에 의해 시행령이 공포(公布)되지만, 조선조에 사대부들이 관혼상제를 가례(家禮)대로 시행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Kwoon 2010). 가례는 조선의 사대부 사회에 서서히 정착되어 나갔으며,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대표적인 몇몇 사대부가문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유희춘도 조선시대를 살던 다른 양반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그의 생활 속에서 보이는 제례와 접객은 17세기 이후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Jeong 2003). 제례는 시속(時俗)의 영향을 받아서 직계조상을 위주로 간단하게 지

내는 윤희봉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접객은 다양한 성격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1) 사대부(士大夫)들의 제사(祭祀)와 제수(祭需)

조선시대 제사는 당시 양반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의 하나였다. 16세기 조선 중기엔 남녀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 받았으므로 제사도 자녀들이 서로 돌려 가며 지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미암도 외갓집 제사와 처갓집 제사를 모두 지냈다(Jeong 2002).

특히 미암은 기본적으로 자기 조상의 제사는 자기가 지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부인과 떨어져 살 때는 자신이 직접 주관해서 제사를 지냈고, 부인과 함께 살 때는 지방과 축문을 쓰고 제례를 안내하는 역할은 자신이 제사음식인 제수를 장만하는 역할은 부인이 각각 담당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낸 뒤 항상 일기에도 쓰기를 ‘제물이 풍족하게 갖추었으니 부인이 내조한 힘이다.’ ‘제물이 깨끗하고 풍비했으니 부인이 준비한 힘이다’라고 기록하면서 부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그는 자기 조상의 제사는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지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罷漏(파루)를 치기 전에 일어나 머리 빗고 세수하고 관 쓰고 띠 띠고 紙榜(지방)과 祝文(축문)을 쓰고 먼동이 틀 무렵에 조부와 부친의 兩位(양위) 등 4尊(祖妣: 조비와 妣: 비까지)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제물이 꼭 갖추어져 흐뭇했다(1568年 5月 14日)’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파루를 치기 전 새벽에 일어나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고 관을 쓰고 띠를 띠고 지방과 축문을 쓰고 윤희춘은 직접 제례를 준비하였다. 먼동이 틀 무렵 부모님과 조부모님 4尊을 모시고 제물을 갖추 제례를 지냈다.

날이 밝기 전에 考妣(비) 兩位(양위)에게 제사를 지냈다. 祝文(축문)은 ‘愿(은)을 무릅써 조정에 돌아와 다시 清班(정반)에 오르고 이제 忌辰(기진)을 당하오니 슬프고 사모한 마음 한이 없습시다’하였다. 肉饌(육찬)으로 제사를 지냈다. 禮(예)에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근래에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이 禮를 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肉으로 제사를 차리고 素物(소물: 어육이 아닌 음식)을 쓰지 않기로 했다. 祭物이 어지간히 갖추어져 기쁘다(1568年 6月 初6日)'.

제수(祭需)로는 술과 육찬(肉饌)을 올렸다. 1568년 6월 초 6일의 기록에서처럼 과거의 풍속에는 어육(魚肉)이 아닌 소물(素物)로서 제수를 마련하였는데 당시에는 예를 행하기 때문에 제수로서 육(肉)을 썼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암일기」가 기록된 16세기 후반부터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점차 가례(家禮)를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례를 중시했기 때문에 관리들도 관청에 병가를 내고 기제사를 지내는 것이 통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목욕재계하고 소식을 하는 등 극진한 정성과 공경으로 조상을 섬기고 있다.

‘저녁에 花梁僉使(화량첨사) 朴公麟壽(박공인수)가 나의 先親 祭祀(선친제사) 지냄을 알고 사람을 시켜 민어 4마리와

<Table 4> Seasonal expenditure figures of Miam families from spring to summer (1568年)

日時	受領人	持出內譯	日時	受領人	持出內譯
1568.02.02	부의 하전	쌀 콩 각 1말	1568.05.03	임발영	고기
1568.02.02	만비(최수장의 첩)	백미 2되	1568.05.05	광문	배
1568.02.04	동관 선생들의 종	술 6동이	1568.05.08	이정진	치어(송어) 2개
1568.02.05	이충의택	백미 1말	1568.05.08	심동지	치어
1568.02.11	이은진 구()	백미 10말, 참깨 1말	1568.05.20	홍청지 인경의 상사	쌀 5되
1568.02.11	홍도사 우용의 처	꽃감 1집	1568.05.21	양희윤, 허응세, 이지양, 이황	조기
1568.02.14	김동지홍윤	감태(감)	1568.05.21	진회수	조기 2속
1568.02.14	한(韓)사신	백미 3말, 전복 1꼬지	1568.05.23	종성 김공수	술
1568.03.04	김연의	깨 3말, 밀가루 3말, 청어 5두 름, 건 청어 3두름, 버 3석, 밀납 1되, 문어 3미	1568.05.26	이광주	호초 1봉
1568.03.14	이정남	꽃감 4고지	1568.05.26	필공 성복	쌀 2되, 생선
1568.03.22	김인걸	전복 1고지	1568.05.26	허응세	호초 조금, 백미 1말
1568.03.22	장세훈	전복 1개	1568.05.28	홍문관의 장책장	생선, 쌀
1568.03.23	박자근	전복 1고지	1568.05.28	김관교이진	호초
1568.03.24	이희철	전복 2고지	1568.05.28	정(鄭)	호초
1568.03.29	집 지키는 종	쌀 1말	1568.06.03	이충의위	쌀, 백립 1말
1568.04.01	장통방	쌀, 콩	1568.06.03	홍만호홍의 모(母)씨택	건어 8마리
1568.04.02	송천수	말린 꿩 1수	1568.06.06	이생	장 1그릇
1568.04.04	첩가	좋은 쌀	1568.06.06	김한	호초 1봉
1568.04.06	집지키는 종	쌀 1말, 생선 반찬	1568.06.11	장책장	생선, 쌀
1568.04.11	유삼판택	보리 10두	1568.06.11	권동지응창	쌀 1말
1568.04.14	허연	말린 송어 1미	1568.06.12	본가	오징어 30마리, 말린 노루 1체, 문어 1마리
1568.04.17	유삼판 처 이씨	쌀	1568.06.13	갑충경	녹미 10말
1568.04.18	김지평저의 첩가	백미 1말	1568.06.14	목면의 단령을 취해 온 자	쌀 5말, 조기 20마리
1568.04.21	여침정의 집	생강 1되	1568.06.19	옥당의 서이하전	마늘 80본, 마늘 1되
1568.04.21	조세급	미역	1568.07.13	박순원	수박
1568.04.22	오자	콩 1석	1568.07.17	침동지희빈	포육 1속, 말린 꿩
1568.04.25	성진	쌀 2되	1568.07.19	김공수	백미 1말, 석수어 1속
1568.04.25	판관 김명견 처	녹미 1말	1568.07.19	유경소	꽃감 2집
1568.04.26	이웃할머니	약과	1568.07.19	퇴계선생	해의 1집, 표고 1되
1568.04.26	홍문관의 서사	술	1568.07.26	이문학내실	전복
1568.04.28	범손 무토리	술	1568.07.26	최응	말린 고기 15조, 말린 민어 1미

준어 3마리를 보내왔다(1568年 5月 13日)’, ‘權沃川(권옥천)이 甘醬(감장)과 미역과 石茸(석이)를 보내왔다. 草芝萬戶(초지만호) 李春壽(이춘수)가 생민어 1마리와 말린 민어 2마리를 보내왔다. 祭需(제수)를 도와준 것이다(1568年 6月 初5日)’. 과거 풍속에는 제수로서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소물(素物)로서 제례를 지냈다면, 16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제수로 고기를 올리는 것이 극진한 정성이며 유식한 사람들의 예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제수(祭需)로서 민어, 준어 등의 귀한 생선을 지인들이 보내와 제례를 지내기도 하였다.

2) 사대부들의 접빈객(接賓客)

사대부들의 일상생활에서 봉제사 다음으로 중요시 되었던 것이 바로 접빈객이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빈객을 잘 접대하는 것이 사대부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예의였다.

「미암일기」의 기록을 보면 제례가 끝나고 나면 꼭 손님을 불러다가 밥을 대접하고 술과 고기를 대접하였다. ‘아침에 任拔英(임발영) 申淹(신엄) 李枝陽(이지양)을 불러다가 밥을 대접하고 또 單字紙(단자지) 각 2장씩을 줬다. 薛公弼(설공필) 金蘭玉(김난옥)을 불러 酒肉(술과 고기)을 대접했다(1568年 5月 14日)’.

‘李淳(이순)이 乾魚 4마리와 생전복 30개와 甘醬(감곽: 미역) 1同(10條) 말린꿩 1首를 나에게 줬다. 李淳(이순)에게 저녁밥을 대접했다(1568年 5月 15日)’.

평소 미암가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찾아왔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물건을 가져오고, 주인 역시 음식 대접은 물론 손님이 돌아갈 때 뭔가를 선물로 챙겨주었다.

‘洪州牧使(홍주목사) 金公億齡(김공억령:仁老)이 찾아왔다

가 가고 柳君夢翼(유근몽익)이 찾아와 담화를 하고 같이 점심을 들었다(1568年 6月 11日), '해질 무렵에 林川의 守宰 沈 鎮伯 仁이 酒饌을 가지고 찾아와 조용히 담화를 했다. 이윽고 점심상을 차렸는데 나는 덕분에 牡蠣(모려: 굴)와 쇠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저녁에 또 酒果를 베풀었는데 朴舜元 許봉 광문 형 함이 모두 참석했다. 등불을 밝히고 조용히 있다가 갔다(1568年 10月 初8日)', '薛公弼(설공필) 金蘭玉(김난옥)을 불러 밥을 대접했다. 장 한 그릇을 李生(이생)에게 줬다. 이날의 晝(주) 夕(석)의 講(강)과 책 교정의 一會(일회)에 나는 大忌(대기)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金한이 와서 내일 내려가겠다고 고하므로 나는 白紙 1卷과 호초 1봉을 주고 또 對坐(대좌)하여 점심을 들었다(1568年 6月 初6日).

이와 같이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빈객을 잘 접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다. 그것은 빈객을 잘 접대하는 것이 곧 사대부로서의 예의를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568년 10월 초8일의 기록을 보면 손님이 찾아와 주과를 베풀었는데, 덕분에 귀한 굴과 쇠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귀한 양념류인 후추를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 또 사대부들은 평소에 덕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먼 곳에서 자신을 찾아온 빈객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며 노자를 보태주는 것이 덕을 베푸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빈객이 집에 넘치는 것은 그 집주인에게 덕을 베푸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선중기 귀중한 사료인 「미암일기」 속 생활 풍속 중 사대부의 음식문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 전통음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토리텔링 소재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1567년 10월부터 1568년 9월까지 1년간의 일기내용을 분석 범위로 설정하여 가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분석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살아있는 전통음식 이야기를 읽어 내고자 하였다.

「미암일기」 분석을 통한 16세기 사대부가 음식문화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겨울철(1567년 11월-1568년 1월) 수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미암가의 수입 내역으로는 관직 생활의 대가로 받는 녹봉과 찬품(饌品), 지방관의 증여와 이웃들의 선물, 그밖에 임금의 하사품, 선상 대립가, 노비신공 등이 있었다. 당시는 서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선물경제 시대였다. 녹봉이나 선물로 받은 식품 내역은 쌀, 콩, 닭, 꿩, 어패류 등 매우 다양하였으며, 운송한 찬품들은 모두 부패를 막기 위해 말리거나 절인 형태였다. 3개월간 미암가에서 받은 식품 수입 내역이 대략 212건 정도였다. 곡류가 78건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어패류 66건, 육류가 36건, 과실류가 14건, 해조류가 10건, 양념류가 8건의 기록을 보였다. 단일 품목 중 가장 많은 기록을 나타낸 품목은 쌀이 42건, 콩이 24건이었다. 겨울철이라 보관이 용이하며 식량과 재물이 되는 곡류가 가장 많았으며 채소류의 이동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둘째, 1567년 겨울과 1568년 가을철 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식품 지출은 주로 노비와 식솔들의 식료로 지출되거나, 생활용품 구매나 토지 구입비용으로 지출, 부의나 혼수 부조금으로 지출되었다. 쌀로 대표되는 곡물의 경우도 米(미), 祿米(록미), 稻(벼), 白米, 中米, 太, 麥으로 다양하였다. 특히 소액의 생활용품 거래에는 면포보다는 주로 쌀의 사용이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6개월간 미암가에서 식품으로 지출된 건수만 보아도 100건이 넘는다. 지출 내역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비를 비롯해 노비월급과 의복비, 선물에 대한 답례와 살림장만 비용, 집세, 애경사에 대한 부조 등이 있었다. 지급된 식품도 쌀, 콩, 메밀쌀과 같은 곡류, 말린 꿩, 노루 뒷다리 등의 포육류, 전복, 오징어 등의 어패류, 꽃감, 유자 등의 과실류, 소금, 참깨, 꿀, 생강 등의 양념류뿐만 아니라 청주 등 주류까지도 매우 다양한 품목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름철(1568년 5월-7월) 수입을 중심으로 살펴본 미암가의 식품 수입 특징은 주로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로서 기능을 하였다. 즉, 「미암일기」에 기록된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음식문화 특징은 반찬거리를 포함해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주로 가까운 사람들의 선물에 의해 충당하였다는 점이다. 이웃이나 동료, 친척, 문생 등은 거의 매일 같이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들은 자잘한 반찬거리에서 식량과 의복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보내왔다. 그때마다 미암도 다른 물건으로 보답하는 걸 잊지 않았다. 여름철 3개월간 미암가에서 받은 식품 수입내역은 대략 118건 정도이다. 곡류 13건(11%), 채소류 17건(14%), 육류 16건(14%), 어패류 53건(45%), 해조류 3건(3%), 과실류 14건(12%), 양념류 2건(1%)의 기록을 보였다. 그 중 어패류 선물이 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미암가에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귀한 찬물로서 육류보다는 어패류 사용이 보편적이었고 선호되었음도 알 수 있다.

넷째, 1568년 봄과 여름철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대부가의 식품 지출 특징은 주로 봉제사(奉祭祀)와 접빈객(接賓客)을 위한 것이었다. 유희춘도 조선시대를 살던 다른 양반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제례는 시속(時俗)의 영향을 받아서 직계조상을 위주로 간단하게 지내는 유희봉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접대는 다양한 성격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수(祭需)로는 술과 육찬(肉饌)을 올렸다. 과거의 풍속에는 어육(魚肉)이 아닌 소물(素物)로서 제수를 마련하였는데 당시에는 예를 행하기 때문에 제수로써 육(肉)을 썼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암일기」가 기록된 16세기 후반부터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점차 가례(家禮)를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빈객을 잘 접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다. 그것은 빈객을 잘 접대하는 것이 곧 사대부로서의 예의를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귀한 사료인 「미암일기」 분석을 통하여 조선 중기 사대부가의 선물경제와 봉제사, 접빈객 등의 음식문화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2년도 호서대학교 기초학문연구비 지원 사업(과제번호: 2012-0228)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References

- 신동원. 2006. 조선후기 의약생활의 변화: 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역비논단: 344-3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한민족 문화대백과사전8. 주)삼화. 경기도 성남. p 655
- Jeong CG. 2002. Song, Deuk-Bong's Daily Routine and Creative Activity on the Me-Am Ilki.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78(-):543-562
- Jeong JN. 2003. The Spatial Composition and its Active-Utilization of Sadaebu (士大夫) house in the 16th & 17th Century. Masters degree thesis. Kyonggi University. pp 12-180
- Kim H. 2001. The Medical Environment in both the Capital Area and Local Areas in the Late 16th Century (as described in the MeeAm Journals). Daegu sahak, 64(1):127-160
- Kim H. 2009. Local Magistrate's gift-politics (贈物政治) and fans (扇) in Joseon period. 嶺南學, 15:97-142
- Kim MH. 2008. A Study on the food culture of literature and painting in the lat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Focused on five Pansori texts, Korean customs poetry, genre paintings. Doctorate degree thesis. Hoseo University. pp 2-4
- Kim MH, Chung HK. 2013. Development of local food content in Jinan-Gun and Gurye-Gun through storytelling. Korean J. Food Culture, 28(2):145-157
- Kim SB, Na YA. 1994. Review on the Ancient Korean Length, Weight and Volumetric Measures, Korean J.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4(1):1-18
- Kim SM. 2010. The Aspect of Sung Confucianism and Natural Recognition Shown in the Sijo of Gentry in the 16th Century -Mainly about Toegye and Yulgok. 語文論集, 44(-):147-163
- Kwoon OY. 2010. Memorial Rites of Joseon Literati: The Origins and Facts. 民族文化論業, 46(-):449-478
- Lee JS. 2004. Monetary circulations of Choson between the 16th and the Early 17th investigated by everyday journals and records of land trades. 朝鮮時代史學報, 32(-):95-148
- Lee SI. 1995. A Study of Yangban Class Officials' Income in the 16th Century Korea-Viewed from miamilkee, You Huechun's Diary. 歷史學報, 145(-):91-146
- Lee YS. 2008. The Study on Mi-Am Ilgi's Writing Ground and Writer's Consciousness. 韓國古傳研究, 18(-):351-380
- Shim YS. 2012. Life of Yangban in Joseon Dynasty seen through Donated Collections from Eminent Families in Korea. 人文科學研究, 17(-):81-124
- Sin YA. 2010. The Distribution of the Official Stipend and Bureaucrats' Income in the Early Chosun.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114(-):279-323
- Song JY. 1996. A Study on the 『Mi-am Ilgi (眉巖日記)』. Doctorate degree thesis. Dankok University. pp 316-326
- Song JY. 2010. A Study on 16th century's coming-of-age, wedding, funeral, sacrifice rituals in Mukjeilgi and Miamilgi. 漢文學論集, 30(-):303-320
- Woo JI. 2010. The Books Exchange and Distribution of Local Editions of Yoo Hee Chwun through MiAm Diary. 地域과 歷史, 26(-):119-177
- Yoon SJ. 2006. High ranking official costume in the 16th century examined through analysis of the Miam Diary. Masters degree thesis. Soul National University. pp 9-112

2013년 7월 17일 신규논문접수, 8월 19일 수정논문접수, 8월 23일 수정논문접수, 8월 26일 채택